

북한 주민의 소소한 일상, 미시적인 접근 절실

문헌으로 부정확한 부분 사진으로 분명해져 하나됨은 '차이'에 대한 이해로부터

안해룡

북한은 여전히 한국인들에게 미지의 나라다. '같은 민족'이라는 원초적인 의식만이 분단 6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뿌리깊은 의식의 근원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이제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적 동질성만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북한, 북한 사회, 북한의 일반 생활 등을 이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 남과 북은 정치, 군사적인 대결 구조 하에서 권력이 제공하는 일방적인 정보에 의존해야 했다. 정보는 통제되어 있었고, 자유로운 판단이 아닌 모범답안만을 요구하는 정치적 억압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권위주의적인 정치 구조가 무너지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북한에 대한 가치 판단이 나 평가는 다소 여유 있는 논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북한에 관한 출판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기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국의 군사 정권은 일정한 출판 통제를 통해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일정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 과정에서 비판적 시각에 대항하는 우호적인 시선의 출판물들이 소개되었고, 이런 출판물의 영향으로 일부에 북한 사회에 대한 환상과 우호의 시선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구조론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목도하면서 북한에 대해 감정이나 주관적 해석이 아닌 보다 사실에 근거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의 시각이 필요하게 되었다. 역사의 현장이 북한에 대하여 감성적 접근이 아닌 이성적으로 접근하도록 요구했던 것이다.

남과 북의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감격적인 6.15 선언을 한 뒤에 남북의 교류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군

사적 긴장 관계 속에서도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의 상봉, 경제 교류 등을 통해 남한과 북한의 접촉면은 확대되고 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교류는 건널 수 없는 강을 넘었다는 표현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인 교류를 넘어서 민간 교류로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북한은 아직도 미지의 나라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북한에서 나오는 신문, 잡지 등은 물론, 출판물이 아직도 일반인들이 직접 자유롭게 다가설 수 없는 특정한 공간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북한의 출판물은 북한의 정치 체계 속에서 통제된 결과물이자 선전 매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북한의 <노동신문> 등의 당 기관지나 잡지를 비롯한 출판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을 연구하고 분석한다. 북한을 방문하는 일도 쉽지 않고, 방문하더라도 자유스러운 이동이나 만남이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 현지 확인을 통한 연구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에 체류하면서 북한 사회의 변화 모습을 읽어낸다는 것은 아직도 남한의 연구자들에게는 불가능하다.

필자는 최근 <북한 일상의 풍경>(현실문화연구)이라는 사진기록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혹독한 경험을 했다. 남한의 사진가가 수년 동안 북한의 특정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행운을 얻어, 이를 기회로 세밀하게 북한을 관찰하면서 기록한 수천 점의 귀중한 사진을 접할 수 있었다. 리만근이라는 사진가는 사진적인 완성도를 넘어 한 장 한 장의 사진에 북한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남한의 사진가는 언제든 북한의 안내원을 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진 촬영을 할 수는 없었다. 그

는 북한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북한의 사람들도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한다. 백일이나 돌, 그리고 가족의 경사가 있다면 동네의사진관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나 김정일 장군의 생일 등이 되면 태양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한다. 필름을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북한의 사람들은 <우리 중대 사진사 왔네>라는 노래가 불릴 정도로 사진찍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외부의 사람이 북한 사람들의 일상을 촬영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한다. 그것은 자신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한 자존심일지도 모른다.”

사진가가 집요하게 확인하고 취재한 내용만을 가지고 사진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북한에 체류는 할 수 있었지만 북한 사람과 격리된 공간에서 있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정치·경제적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했다. 이런 보완 작업을 위해 북한 관련 연구서와 자료들을 뒤져보기도 했지만 사진 속에 나오는 일반 생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사진으로 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설명들이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부정확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

또한 북한의 정치나 경제 등에 관한 전문 서적이거나 연구서는 많았지만 평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었다. 난감했다. 일부 탈북자의 수기에서 북한의 일상생활에 대한 언급을 볼 수는 있었지만 사진과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었다. 최근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현장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했다. 무척이나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지만, 이러한 확인 과정에서 북한의 일상생활의 단면을 다소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출판된 탈북자의 수기는 대부분 북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다. 북한의 정치 체제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전달되기는 하지만 북한의 사회구조나 일상생활 전반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 가운데에서도 1990년대 말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기록한 권혁이 지은 《고난의 강행군》(정토출판, 1999)이나 좋은벗들이 엮은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정토출판, 2000)는 북한 일반 사람들의 일상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민무력부 후방총국 산하 룡성무역회사 합영부장이었던 최주환의 수기 《북조선 입구 I》(지식공작소, 2000)는 북한의 시장, 주거, 교통, 사업문화 등에 관해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한의 일반 사람들의 일상이라기보다는 북한 상층부의 생활상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민족21이 엮은 《북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선인, 2004)나 정창현이 지은 《변화하는 북한 변화하지 않는 북한》(선인, 2005)은 일반 사람들이 북한의 일상과 변화상을 좀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한 것이다.

사진기록 《북한 일상의 풍경》의 출판 준비과정과 취재 과정을 통해 이제 북한의 정치나 경제와 같은 거시적인 연구와 함께

북한 사회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 실증적인 연구가 절실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평양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벗어나서 생활하는 북한 일반 사람과 그들의 일상에 대한 출판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정보가 극도로 제한된 북한에 관한 이러한 출판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사진을 구하거나 일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출판기획 자체를 포기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북한 사회와 일상에 대한 미시적인 시각의 출판물을 기획하고 준비해야 할 절실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북한 일상에 대한 미시적인 관찰과 연구는 남과 북이 언어나 관습은 물론 일상생활과 문화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이해는 남과 북이 민족이라는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향점을 제시할 것이라 믿는다. ‘차이’에 대한 이해는 ‘하나’임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 이 글을 쓴 안해룡은 사진기자가 디지털로 직업을 전환하고 있다. 북한에 미주리며 사진작업을 하는 리만규 씨의 사진 작업 속에 담긴 북한의 일상을 접한 후 충격을 받고 한국인들에게 보다 친숙한 북한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 그의 수차례 만나 작업과 기록을 정리하였다. 또한 리만규 씨와 리만규 씨의 아내와 재일동포의 민족교육 문제에 관한 기록작업을 10여 년 넘게 계속해 오고 있다. 저서로는 《북녘 일상의 풍경》이 있다.